

안철수 “넓은정치 바꿀 것”...호남 제3지대 통합 힘 신나

1년 4개월만에 정계복귀 첫 행보 광주 찾는 이유

1년 4개월만에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19일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이 첫 행보로 광주를 찾는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진원지로 전국적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킨 지역이었던 만큼 안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첫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보수 야권 통합’에 맞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군소정당간 ‘제3지대 통합론’도 속도를 내고 있어 안 전 의원의 광주 방문은 더욱 관심이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의원이 광주에서 ‘호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어 90여일 앞둔 제21대 총선에 호남민심에 파동을 일으킬지도 주목된다.

19일 정가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20일 서울 동작동 국립협천공과 광주 5·18 묘역을 잇달아 참배한다. 이어 처가가 있던 여수와 자신의 고향이자 본가가 있는 부산에 들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의원의 5·18 민주 묘역 참배에는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과 함께 예전 광주-전남지역에서 정치활동을 같이했던 지지 모임들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의원은 서울 신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당분간 이곳을 근거지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과 안 전 의원의 정치 행보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 결과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녹색 태풍’을 앞세워 정당 2개월여 만에 압승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의당은 광주 8석을 석권한 것은 물론

5·18묘역 참배 지지모임 참석
20대 총선 ‘안풍’ 진원지서
호남민심 달라고 지지 호소

론 전남에서 8석, 전북에서 7석 등 호남에서 총 23석을 차지했다.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서도 민주당에 앞선 국민의당은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했다.

당시 국민의당 압승 배경에는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을 재편해 정권 창출을 요구하는 호남 민심이 최대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안 전 의원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당적을 둔 바른미래당에 복귀해 당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 민심을 달라고, 분산된 당의 힘도 결집해야 하는 숙제를 남긴 셈이다.

대안신당은 안 전 의원의 귀국에 대해 “위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향후 행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체로 안 전 의원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도보수 정계개편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됐든, 정동영 대표가 됐든, 안철수 전 대표가 됐든 그 누구와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중심의 ‘보수 통합’에 맞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중도개혁 노선의 제3세력 통합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 세력’을 아울러 새로운 제3세력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의원의 복귀와 호남 방문에 의미가 있고, 그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생” vs “정권심판”...여야 설 밥상머리 민심 쟁탈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서 ‘명절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 설 밥상에 오르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 민심을 사로잡아 유리한 총선 고지를 확보하려는 여야는 일찌시 설 연휴(24~27일)에 회자할 메시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의 ‘프리미 대결’도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 연휴 키워드는 ‘민생’이다. 민주당은 최근 ‘4+1’ 공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어린이교통안전강화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특별법, 청년기본법 등 굵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주도했

다. 따라서 주요 개혁·민생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온 ‘역량 있는 여당’이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확실한 변화’, ‘국민 체감 성과’를 이룰 민생 중심 정당이라는 확신을 심겠다는 각오다.

앞서 국민의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1차 공약으로 발표한 민주당은 설 전 경제·청년 등 민생과 직결된 2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 전날인 23일 서울 용산역을 찾아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입법 성과가 담긴 홍보 팸플릿을 나눠주며 귀성 인사를 한다. 약 6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 당 상임고문을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귀성길 인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총선을 겨냥해 영입한 인재들이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실정’을 앞세워

다. 한국당은 앞서 재정 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주택공약,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외고 폐지정책을 되돌리는 교육 공약 등을 발표했다.

한창 진행 중인 보수통합 논의를 포함한 정계 개편이 설 밥상머리의 화제거리가 될 것이 확실한 만큼, 설 연휴 이전에 보수통합의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이 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이날 오후 귀국하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전 의원의 선택에 따라 통합 논의 등 총선 정치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3일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난다. 한국당도 설맞이 현수막과 팸플릿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메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위력 제한적일 것”...민주 안철수 정계복귀 평가절하

“총선 구도 흔들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에 대해 “위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안 전 의원의 파괴력이 과거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안 전 의원의 정계 복귀에 대해 이미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을 통해 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데다 지역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도 이미 지지를 철회한 상황이어서 정치적 입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줬던 호남 민심을 버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택한 안 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며 “그의 정계 복귀가 전체적인 총선 구도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3지대 신당 참여나 독자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중도 및 부동층의 이동으로 인해 총선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 전 의원이 보수 통합이나 연대 등에 나설 경우, 총선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안 전 의원이 보수·중도 통합이나 연대로 선회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보수

는 통합하고 진보는 분열하면서 어려운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군소 야당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선다면 민주당 강세인 총선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백의 중군의 정신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선다면 총선 구도를 뒤집을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기존의 양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마이웨이를 선언한다면 그의 정계 복귀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문 대통령 오늘 올 첫 수보회의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처음으로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명절 민심을 잘 살피며 민생·경제 행거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남북협력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경지역 협력 ▲도료율림

픽 공동임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7일에는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